

08 July 2021

## 리오틴토(Rio Tinto)와 포스코 (POSCO) 의 탄소중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리오틴토는 7월 8일 포스코와 탄소중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원료 기술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철광석 생산에서부터, 철광석 수송, 철강 제조까지 이어지는 철강밸류체인(Steel Value Chain) 전반에 대해 탄소 저감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포스코와의 본 협약으로 리오틴토는 올해 초 발표된 Scope 3 배출량 목표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 있게 되었다. 리오틴토는 기술개발투자 및 고객사들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2030년까지 철강생산 탄소 배출량 30% 이상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의 탈탄소화의 노력은 최근 한국정부가 발표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국가적 포부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다른 국내기업들의 탈탄소화 활동을 가속화 하는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알프 베리오스 리오틴토 CCO는 “당사의 오랜 주요고객사인 포스코와의 이번 업무협약은 철강공정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 저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양사의 의지를 보여주며, 기타 주요 고객사들과 이미 체결한 기존 파트너십과 함께 저탄소 철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김학동 포스코 철강부문장 (사장) 역시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시민 포스코에게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리오틴토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철강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